

#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7월 17일  
제1905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루카 10,41-42)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예수 그리스도〉, 조르주 루오

## 연중 제16주일 (다해)

**제 1 독서** 창세 18,1-10L | 나리,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화답송** 시편 15(14) |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제 2 독서** 콜로 1,24-28

과거의 모든 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복음** 루카 10,38-42 |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때에<sup>38</sup>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sup>39</sup>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sup>40</sup>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sup>41</sup>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sup>42</sup>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 복음 묵상

오늘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특별한 묵상 거리를 소개합니다.

첫째, 마음의 과녁은 언제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를 묘사하는 단어는 “듣고 있었다”입니다. 스승의 말을 듣는 제자처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반면 마르타를 묘사하는 단어는 “분주하였다”입니다. ‘사방에서 마음을 끌어당김’을 뜻합니다.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더라도 주변에 마음을 빼앗기면 분주할 수 있고, 반대로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머무름과 분주함을 가르는 것은 태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이를 돌보고, 일하고 사랑하며,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그 일들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과녁을 잃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행동이 배제된 들음은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을 좇기 쉽고, 반대로 들음이 없는 행동은 자신을 드러내는 수준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듣는 삶, 마르타와 같이 봉사하는 삶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 머물 줄 알아야 하고, 말씀 안에 머물 줄 아는 사람은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활동의 진정성을 가지게 해 줍니다. 마리아와 마르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셨던 그 공간이 오늘 우리 마음과 삶 안에서 체험되면 좋겠습니다.

(김인호 루카 신부)



7월 24일(일)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준비하며



다음 주일(7월 24일)은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을 두 번째로 거행함으로써, 이날은 우리 교회 공동체 사목 실천의 일상으로 들어가 하나의 전통이 되려 합니다.

조부모와 노인에 대한 관심은 사실 특별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서 이례적인 존재가 아니라 굳건히 자리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황님께서, 조부모와 노인이 우리 국가와 공동체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라고,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깨달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는 서둘러 해치워야 할 일이 아니라 향후 오랫동안 우리가 참여하여야 할 장기적인 사목 활동의 토대를 다지는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는, 특히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노인들은 인구의 이십 퍼센트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곧, 노인들이 가깝지도 않고 관련도 없지만 돌봄은 받아야 하는 이들로 보이게 하는 주장들을 접어 두고, 일상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에서도 사목적 관심을 두는 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

외로운 노인 방문하기

-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은 많은 나라에서 보건 위기가 종식되는 상황에 거행될 것이며, 더욱 자유롭게 실행하고 인격적 만남과 수용에 중점을 둔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날이 드러내고자 하는 친밀함과 위로의 메시지가 모든 이에게, 가장 외로운 이들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조부모 그리고 공동체의 외로운 노인들을 방문하여 교황 담화를 전할 것을 요청한다.
- 밖으로 나가는 교회의 가시적인 표징인 방문은, 노인들이, 특히 가장 외로운 이들도 당연히,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길이다.
- 방문은, 성모님께서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을 때처럼 일어나 서둘러 다른 이에게 가는(루카 1,39 참조) 개인의 선택이다.
- 방문은 꽃 등의 선물을 전하고,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도를 함께 바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외로운 노인 방문은 이날에 수여되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 가운데 하나이다.
-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만남, 그리고 그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우정은 "늙어서도 열매 맺으리라."(시편 92[91],15)는 표징 가운데 하나이다.
-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 지닌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방문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해시태그(#노인과조부모)로 게재할 수 있다.

노인들과 함께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준비하기

-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거행되는 주일 전례에 최대한 많은 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이후로 많은 상황에서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노인 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전염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또한 여러 차례의 봉쇄 기간에 텔레비전이나 온라인으로 거행되는 예식에 참여하는 습관을 들인 탓이기도 하다. 이날이, 노인들이 직접 미사에 참여하는 습관을 되찾도록 돕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이들에게 교황 담화를 전해 줄 수도 있다.
- 이날에 함께하는 모든 조부모와 노인에게 그들 공동체의 특별 지향과 함께 교황님의 기도 지향을 바치도록 맡길 수 있다.

젊은이들과 함께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준비하기

-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거행을 앞두고 공동체의 젊은이들을 모아 이날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들이 가능한 많은 노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
- 마찬가지로, 이날을 거행하고 나서 젊은이들을 만나 노인 방문의 결실을 나눌 수 있다.
- 젊은이들은 해시태그(#노인과조부모)를 활용하여 이날에 관련한 내용을 널리 알리는 사회 캠페인을 조직할 수 있다.

전대사 받는 조건

- **‘제2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7/24)’에**
  - [1]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 [2] **영성체**를 하고
  - [3]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인 **‘노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 ※ 아래 내용(①,②) 중 하나를 실천할 경우 모든 신자들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미사에 참여하기
  - ②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 장애인)을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만나서 충분한 시간 보내기

## 김태광 신부님 연중 특강

# “회복의 삶”

본당에서는 7월 10일(일) 한국 천주교 사도직회(팔로티회) 소속 김태광(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연중 특강이 있었다. 신부님은 2주간의 미주 일정 중 우리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긴 비행시간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열정을 보여주셨고 이에 응답하듯 220명의 본당 신자들이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신부님은 신앙인으로서 ‘회복의 삶’이란 아담의 원죄 이전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화두를 던지시며 ‘회복’이란 영어 단어는 “Recovery”와 “Restoration”이 있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는 회복은 “Restoration”으로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고 복원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말씀하셨다. 성경 속의 치유 사화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육체의 병’이 낫는 것을 넘어 ‘영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구원되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다고 언급하시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그 치유 이후의 ‘변화된 삶’인데 이는 사도 요한이 묵시록에서 언급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생명의 말씀을 위에서 거저 받은 우리는 이제는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하늘을 향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위에 부딪치고 깨지고 상처투성이로 ‘알’을 낳기 위해 끊임없이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같이 우리 각자도 **‘열매’를 맺기 위한 지속적인 ‘영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언급하시면서 신앙생활도 자신의 것을 소유(Having)하려는 삶을 떠나 존재(Being)하려는 성숙함을 통해서, 기복을 구하는 기도 대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언급하시며, 소유(Having)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목적 없이 현세의 것만을 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존재(Being)의 삶은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삶’**임을 강조하셨다.

하느님이 태초에 ‘창조의 숨’을 불어넣어 우리 존재를 만드셨지만 이는 단순한 ‘육신의 숨’만이 아닌 ‘하느님의 영의 숨결’이었다.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우리 안에 ‘하느님의 숨’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느님의 숨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최초의 우리 존재는 그 존재 안에 하느님의 숨이 있는 ‘완전한 존재’였다.

다락방(Cenacle)에 내렸던 ‘성령강림 사건’은 새로운 차원에서 ‘생명의 숨’이 우리를 태초의 ‘회복된 삶’으로 인도했던 ‘재창조’였다.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8,9),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20)라는 성경 구절처럼 **영을 통한 우리의 근본적 삶의 변화**를 언급하시며 ‘존재감’이 바뀌지 않는 한 삶은 변화지 않는다고 일축하셨다.

‘회복의 삶’이란 ‘새 계약’과 ‘성령’을 통해서 원래의 존재로 회복시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삶이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하느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무엇을 드려서 하느님 자녀가 되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느님의 자녀 자체로서 이미 ‘충분한 존재’이며 이것이 우리를 원래의 존재로 회복시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말씀하셨다.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에페 1,4)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1테살 3,13)의 성경 구절처럼 **우리는 원래의 흠 없는 존재로 ‘회복’되어, 세상 끝 날까지 흠 없는 존재로 살도록 노력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고 마무리하셨다. <교육부>



### 1 7주간의 여름 성경 특강

- 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8:30
- 주제 : '소명과 결단'(모세와 여호수아) / 탈출기와 여호수아
- 강사 : 정인준(파트리치오) 신부님
- 문의 : 교육부장 (571) 275-0691
- 강의 일정과 제목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세요.

### 2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7월 17일(일) 오전 11:30 (B-3,4)

### 3 안나회 월례회의

- 일시 : 7월 17일(일) 오전 11:30 (A-1,2,3)

### 4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7월 17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 5 꾸르실로 제350차 울뜨레아

- 일시 : 7월 22일(금) 오후 7:30 미사 후 (A-1,2,3)

### 6 북미주 사제 모임

- 일시 : 7월 18일(월) - 23일(토)
- 장소 : 캐나다 밴쿠버
- 본당 미사는 정인준 신부님께서 봉헌해 주십니다.

### 7 수녀님 연피정 안내

- 안 다니엘 수녀님 : 7월 26일(화) - 8월 3일(수)
- 수녀님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 주세요.

### 8 CYO 성가대원, 피아노 반주자 모집

- 미사 중 노래할 성가대원과 피아노 반주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6<sup>th</sup>-12<sup>th</sup> 대상)
- 문의 : 조 스테파니아 (703) 725-3167

### 9 주일학교 등록 안내 (K-12<sup>th</sup>)

- 2022 - 2023 주일학교 등록을 성당 로비에서 받습니다.
- 얼리 버드 등록 기간 : 7월 10일(일) - 7월 31일(일) 2시 미사 전·후
- 등록비 : 한 자녀 - \$100 / 한 가정 두 자녀 - \$180 /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 \$200 (7월 이후)
- \*Early Bird Registration Discount(July 10 - 31): \$10 off 1 child / \$20 off two children
- 문의 : CCD 윤정 보일 (703) 371-3589  
CYO 구아름 (703) 599-8869

### 10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문의 : 윤정 보일 CCD 교감 (703) 371-3589  
구아름 CYO 교감 (703) 599-8869

### 11 하상 한국학교 등록 안내

- 입학 대상 : 유치부 -1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K-12<sup>th</sup>)
- 학사 일정 : 2022년 9월 10일 - 2023년 5월 20일  
매주 토요일 9:30 am - 1:00 pm
- 등록 접수 : 7월 21일(목), 22일(금)  
10:00 am - 3:00 pm  
(하상 한국학교 교무실)
- 우편 접수 :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Pay to Order : Hasang Korean School)
- 학비 : 등록비 \$50 포함 (non-refundable)  
첫째: \$590 | 둘째: \$570 | 셋째: \$550
- 문의 : 교감 (703) 598-5540  
[hasangkoreanschoolva@gmail.com](mailto:hasangkoreanschoolva@gmail.com)

### 12 체육관 사용 안내

- 하상관 체육관 사용을 8월부터 재개합니다.  
사무실에 준비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회장단 회의 검토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하상관 사용시 지켜야 할 사항

- ① 장소 사용은 가톨릭 신자들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 ② 사용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한다.  
쓰레기, 원 상태의 물품이 아닌 것은 치운다.
- ③ 퇴실 시 건물 내부에 있는 전등이 모두 꺼졌는지 확인한다.
- ④ 하상관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 ⑤ 체육관 출입 시 굵이 보족한 신발은 출입을 금한다.
- ⑥ Locker Room과 샤워실 사용 시 사용자(사용 책임자)가 깨끗이 청소하고 떠난다.
- ⑦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체육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체육관 사용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개인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 등)에 대해 교구, 성당, 사제, 이사회, 직원, 시합/행사/대회 관련자와 단체 등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동의해야 하며 어떠한 법적 조치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Thank you

### 감사드립니다.

특강을 해 주신 정인준(파트리치오) 신부님과 김태광(아우구스티노)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수요일 성경 특강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2022년도 본당 총회장 선출

본당 총회장으로 강세원(바오로)형제님이 선임되었습니다. 회장단 구성을 위해 도움을 청하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장단 이취임은 7월 31일(일)에 있겠습니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2022년 7월 10일(연중 제15주일)

주일 헌금	\$ 6,355.00
교무금	\$ 9,080.00
교무금(신용카드)	\$ 4,090.00
2차 헌금	\$ 2,778.00
감사 헌금	\$ 1,080.00
온라인 봉헌	\$ 2,340.00
합계	\$ 25,723.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7월 21일(목) 오후 5:00-6:00  
7월 22일(금) 저녁 8:00-9:00  
7월 24일(일) 오전 6:00-7:00

1. 주일 강론
2. 윤원진 신부의 위대한 성인들 : "아브라함" (4)

### ◇ 복사기 사용 ◇

▶ 복사기 사용을 제한합니다. 복사기 사용이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주세요.

###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http://www.masstimes.org)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  
노인**

민족의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이들을 도와 그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도록 기도합니다.